전법 일기

씨앗은 작아도 꽃은 크게 핀다

전법의 길을 걸어오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도량도, 법회장도 아닌 아이들의 마음이었다. 필자는 부산 흥법사에서 2002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 활동을 시작했다. 합창을 지도하고 플루트를 연주하며 함께 노래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진다.

아이들 옆에는 언제나 부모님들이 있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법회에 오지만,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기다리기만 하는 모습이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21일 동안 〈반야심경〉 21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중 몇 분이 시작했고 그 작은 실천은 놀라운 변화로 이어졌다. 〈반야심경〉은 〈천수경〉으로, 〈천수경〉은 다라니 독송으로, 독송은 사경과 절 수행으로 이어졌다. 매일 SNS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도반이 됐고, 그 모습은 그 자체로 보살행이었다.

후원회장님과 상의해 '내 안의 감사 향기'란 100일 감사 일기 수행도 이어 나갔다. 아이들이 함께 하는 수행으로, 부모님, 친구, 스승, 동생은 물론 길고양이한테까지 매일 감사한 일을 적었다.

감사 수행 후 100일 108배 수행을 이어 갔다. 아이들은 각자 집에서 가족과 함께 108배를 했다. 거실이 법당이 되고 방이 도량이 됐다. 절을 마친 날에는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고 가정 속에서 수행이 자라났다. 그 100일이 끝날 때마다 스님과 가족이 함께 모여 격려와 축하를 나눴다. 그 시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희였다.

시간이 흘러 그때 손잡고 뛰어다니던 아이들은 이제 청소년이 됐고 어느새 청년불자가 됐다. 대학생이 돼서도, 입대 전이나 휴가 때도 도량을 찾았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씨앗은 작아도 꽃은 크게 피는구나"라고 혼잣말하곤 했다. 그 아이들이 곧 불교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은 더 빠르고 복잡해졌고 청소년들의 마음은 예전보다 더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지난여름, 싱잉볼 명상과 함께하는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을 1박 2일로 진행했다. 그 경험을 통해 '지금, 청소년을 위한 전법이 필요하다'는 큰 확신을 가졌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며 분노 대신 자비를, 비난 대신 연민을 배워 마음을 여는 길은 무엇일지를 연구해 오고 있다. 또 부족하지만 조계종 포교원의 '청소년 인성교육계발 프로그램' 공모전에도 지원했다.

나는 믿는다. 부처님의 말씀은 어린 영혼에게 가장 큰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 자비로운 시선,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은 삶의 방향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전법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돕는 일,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일, 마음의 씨앗을 지켜 주는 일, 그것이 곧 포교이자 수행이고 보살행이다.

오늘도 나는 청소년을 떠올리며 조용히 붓다볼을 준비한다. 울림은 멀리까지 퍼지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 닿는다. 그 울림으로 아이들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곳이 곧 도량일 것이다. 전법일기 마지막 장, 나는 이렇게 적고 싶다. "씨앗은 작아도, 꽃은 크게 핀다." 그 작은 씨앗을 오늘도 청소년들의 마음에 심고자 한다. 그리고 잔잔하게 기도한다.



김경숙 (사)싱잉볼치유의소리 대표



송마나의 시절인연

11월의 바람

11월의 들판을 걸으면 바람이 따라온다. 습기 빠진 바람은 가볍게 바스락거리며 세상을 스쳐 간다. 태풍을 몰고 오는 여름 바람은 들판을 휩쓸고 지나가 세상의 깊이를 드러내지 못한다. 맵고 혹독한 겨울바람은 생명의 숨결을 냉혹한 어둠으로 얼려 버린다. 그러나 11월의 바람은 존재를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옥수수를 떠나보낸 기다란 잎은 바람에 흔들리며 초록을 벗어 내고 허연 잎맥만 남긴다. 추수가 끝난 휑한 논둑에 서 있는 억새는 눈부신 은빛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려 버리고 제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모습은 채색된 삶의 껍질을 벗고 무여(無餘)의 마음으로 대중을 일깨우는 선승을 닮았다.

11월의 바람이 몸을 스치면 눈이 맑아져 멀리 있는 산이 가까워진다. 빽빽했던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헐거움과 여유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나무들은 잎과 가지가 뒤엉켜 숨 가빴던 여름의 삶을 밀어내고 청량한 빛의 입자를 마음껏 받아들인다. 한때 죽음을 거부하듯 혈기를 쏟아 붉게 물들었던 단풍잎들도 바람에 몸을 맡겼다. 오욕(五欲)의 잎을 떨군 나무들이 뚝뚝 떨어져 본래의 결을 드러낸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여름 장마의 눅진한 물기가 빠져나간 벌판은 말라 있다. 촘촘히 몸을 비볐던 벼 이삭들이 베어진 논의 흙은 부슬부슬 속살을 내보인다.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 떼가 일제히 내려앉는다. 바람이 그들 위를 스치며 깃털을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기러기들은 몸뚱이와 날개를 둥글게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지와 하나 되어 갈색으로 물들어 있다. 그 색은 신생의 비릿함도 여름의 화려함도 아닌 죽음의 침묵에 닿아 있다. 어쩌면 애초부터 생과 사의 분별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름마저 앞뒤가 없는 '기러기'처럼, 그들은 묵묵히 대지의 빛을 호흡하고 있다.

11월에는 강물마저 몸을 가볍게 한다. 들판을 가로지르며 거칠게 흘러가던 모습은 사라지고 몸을 낮춰 뼈만 남긴 채 고요히 흐른다. 탁류를 쏟아 내던 사나움을 흘려보내고 눈부신 투명함으로 자신을 비웠나 보다. 그동안 얼마나 분주했는지, 어쩌면 오만했을지도 모른다.

대지의 모든 식물이 싹트고 자라나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다. 물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생명의 얼굴을 비춘다. 익어 가는 열매는 마르고 비틀리며 붉거나 누렇거나 검게 변한다. 완숙의 순간, 바람이 강물의 물기를 말려 주지 않았다면 억새와 구절초는 축축함 속에서 생명을 지켜 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기쁨과 슬픔, 번뇌와 욕망의 절정에서는 늘 물기가 고이고 눈물이 흐른다. 인간이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일까. 번뇌는 벽 사이로 스며드는 물기처럼 피어나고 욕망은 곰팡이처럼 번식해 온 집안을 악취로 뒤덮듯 내 마음의 방은 탐진치(貪瞋癡)의 습기로 젖어 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스며드는 습기와 같다. 오욕과 집착이 마음속에 맺혀 이내 물기로 변하고, 그 물기는 마음을 갈애(渴愛)의 물웅덩이로 만든다. 우리는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자신을 잃어 간다.

이제 나는 11월의 바람에 몸을 맡긴다. 바람은 마음의 물기를 말리고 본래의 가벼움으로 나를 풍화시킨다.

〈작가〉

기자칼럼

세대전승, 불교 전법의 뿌리

올해 6월 미국 여론기관 퓨리서치센터에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종교 지형의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불교 인구는 3억4300만명에서 3억2400만명으로 줄며 약 5% 감소했다. 불교 신도의 세계 인구 비율 역시 2010년 5%에서 2020년 4%로 줄었다. 반면 이슬람은 17억명에서 20억명으로, 기독교 인구는 21억명에서 23억명으로 늘었다. 이는 불교도가 밀집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의 '저출산 고령화', '탈종교화'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처럼 종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한국사회는 개종이 어려워지는 '가족 신앙 형태'가 굳어지는 추세다.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제5차 비교조사 보고서(2015)에 따르면 한국사회 개종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1984년에는 개종을 경험한 사람은 17%, 1994년에는 16%에 달했지만, 2014년에는 10%로 줄어들었다. 이는 향후 가족 중심으로 한 신앙의 전승이 중요한 전법포교의 기반이 됨을 의미한다.

불교 세대전승의 모범사례는 한마음선원이다. 이는 한마음선원이 매년 11월 봉행하는 신도수계법회를 보면 알 수 있다. 5000여 명의 신도들이 불자로 거듭나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부모의 손을 잡고 참석한 아이들이다. 부모와 함께 오계를 받고 "거짓말 하지 않겠다고 부처님과 약속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세대전승이라는 불연(佛緣)의 싹이 잘 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아이들은 미래 불교의 '핵심 신도'들이 된다. 이들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승 삼보에 공양을 올릴 거사와 보살이 되거나 불문에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대전승'은 불교 전법의 뿌리지만, 현재 불교계는 이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부모세대가 신실한 신심을 지녔어도 자녀세대에서 신앙이 단절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년세대 포교와 더불어 '세대전승' 역시 불교계는 전법의 화두로 가져야 가야 한다. 그래야 탄탄한 전법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전세계 20여개국으로 수출되는 한국불교미술의 자존심! 聖鐘社 명품 범종 -성종사의 아름다운 표면처리기술-


브론즈착색(에밀레종)


유광 처리(해인사종)


부분 개금(운수사종)


부분 칠보(4보살종)/신제품


칠보 개금(칠보종)

범종명가 성종사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습지길 35 / Tel : 043-536-2581 / Fax : 043-536-2582 / 홈피 : www.sungjongsa.co.kr / e-mail : won6141@hanmail.net / 대표 : 범산 원광식